

日·伊 등 외국기업 전남투자 잇따라

日 고흡수성 수지 생산기업 여수산단에 800억 추가 투입 폴투윈코리아 등 콘텐츠 기업 혁신도시 3500억 투자 추진

외국기업들이 전남에 주목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나주혁신도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데다 관련 산업이 집적돼 기업간 상생발전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본 정밀화학기업인 스미토모세이카가 지난해 여수국가산단에 1000억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공장을 지은데 이어 8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유치단은 지난 27일 일본 오사카 스미토모세이카 본사에서 우에

다 유스케 사장과 만나 여수국가산단에 800억원을 투자해 고흡수성 수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고흡수성 수지는 유아·성인용 기저귀, 전선 방수제 등 원료로 쓰인다.

이 회사는 지난해 완공한 여수산단 공장 가동률이 100%에 달하자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을 후보지로 추가 투자를 검토했으며, 최종 여수산단으로 확정했다.

이처럼 올 들어 외국기업들의 전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베르살리스(이탈리아), LG MMA (일본), 금호미쓰이화학(일본) 등 글로벌 화학기업이 여수국가산단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폴투윈코리아(일본), 발랄라네트웍스(일본) 등 콘텐츠 기업은 나주 혁신도시에 3500억원 상당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전남 진출은 여수국가산단에 국내 대형 화학기업들이 자리잡아 제품 생산을 위한 기초 유분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지만 기술 유출 등 지적 재산권 문제를 의식해 한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남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은 3800만 달러다. 지난해 같은 기간(2700만 달러)보다 40.7% 늘었다.

전남도의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2300만 달러)보다 213% 증가한 72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석유화학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여수산단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투자액 대비 고용 효과가 큰 외국 콘텐츠 기업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직원간 소통강화 등 공직사회 시책 빠르게 정착

전남도가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를 위한 3개 분야 16개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가족과 일상생활 등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소통하는 ‘쉬어 번개팅’은 올해 6차례 진행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날·국 직원들끼리 쌍방향 소통을 위한 ‘수다 점심’과 ‘함께 점심’ 등은 61개 실·과에서 162차례 진행되는 등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조직내 소통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노조와 함께 매일 일정한 소재를 정해서 직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 인사를 받는 ‘이달의 캠페인’은 ‘공직사회 밝고 맑게 만들기’ ‘행정쇄신 실천 캠페인’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다.

8월 실천과제는 ‘먼저 인사하기’와 ‘모든 행정 신속 처리’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시책 추진으로 조직 내부의 전례답습이나 권위행정, 소통 부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공직사회 내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항에 올해 첫 크루즈선인 오션 드림(Ocean Dream)호가 지난 29일 입항했다. 3만5000t급 일본 고급형 크루즈선인 오션 드림호에 탄 일본 관광객들이 여수항에 내려 관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제공>

여수항, 크루즈 모항 가능성 커졌다

日 오션드림호 600명 신고 입항... 한국인 600명 추가 승선 리 출항

여수항이 크루즈 모항으로의 가능성을 높였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3만5000t급 일본 크루즈 오션 드림호가 일본 관광객 623명을 신고 지난 29일 오전 7시께 여수항에 입항해 여수 관광을 마치고 오후 3시께 러시아로 출항했다. 출항 때는 한국 크루즈 관광객 594명을 추가로 태웠다.

일본 관광객을 모집해 한국과 러시아를 경유하는 오션 드림호는 매년 부산으로 입항했으나 기항지 다변화 수요에 맞춰 이번엔 처음으로 여수항을 찾았다.

오션 드림호는 일본을 출발해 여수~러시아~일본을 거쳐 다음날 5일 부산으로 들어온다.

여수항은 그동안 기항지로써 크루즈를 맞이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모항 기능을 담당했다.

모항은 배의 근거지가 되는 항구로 출발지를 의미하며, 기항지는 잠시 머무르는 항구다. 여수항에서 추가로 관광객이 승선함에 따라 준모항으로 기능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으로 구성된 크루즈협의체를 운영해 크루즈 입항을 맞이했고, 엑스레이 장비 2대를 추가로 설치해 입·출입국 시간을 단축했으며, 특산물 판매장과 관광 안내소도 운영했다.

크루즈선으로 여수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들은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5개 코스로 나눠 기항지 관광을 했다. 주요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 아쿠아플라넷, 만성리 검은 모래해변, 충민사 등이다.

최근 사드 문제로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이 어려워지면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그동안 일본과 대만지역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번 오션 드림호에 이어 오는 11월2일 일본 피스픽 비즈니스 크루즈호가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최성진 전남도 관광과장은 “오션 드림호가 여수항에 첫 입항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입항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수항의 장점인 엑스포장 시설을 활용해 해외 기업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①AI중심 창업단지 조성

SW·ICT 르네상스 열어 미래 4차 산업혁명 이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에 광주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광주일보는 앞으로 8차례에 걸쳐 이들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가능해볼 방침이다.

**2018년부터 10년간
첨단 3단지 1조 투입
인재 양성·기업 지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네 번째 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6개 과제 중 SW강국, ICT(정보통신기술)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광주가 내놓은 과제다.

AI 중심 창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을 위한 국책 연구기관 설립 및 기업지원 창업단지를 말한다. 세계 최고의 AI 산업 기반·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R&D를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 비즈니스 생태계 혁신 및 기업 성장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데, 광주시는 2018년부터 10년간 국비 7000억원 등 1조원을 들여 첨단3단지 연구교육단지 내에 7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주체는 광주과학기술·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맡는다.

이 단지에는 3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인공지능

능 캠퍼스가 들어서고,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시험·인증플랫폼 등을 갖춘 국립인공지능연구원도 설립된다. 이와 함께 300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창업기반 조성, 기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구축, 해외 수출지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창업생태계도 조성된다.

AI 중심 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시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분야 세계 최고의 역할을 갖춘 글로벌 연구개발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전략이다.

시는 지난 3월 AI 중심 창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미래부 정책기획관, 지역연구진흥과 등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추후 세부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 전략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가 세계 AI시장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의 미래 핵심사업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가전 등 지리적 내 제조업과 연계해 통한 새로운 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남 땅끝호텔 35억에 매각... 9월 재개관

충청 건설업체에 팔려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남 땅끝호텔이 충북의 한 건설업체에 매각됐다. 매각비는 35억7300만원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7일 충북의 한 중견건설업체 건웅종합건설과 땅끝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웅종합건설은 아파트 시공은 물론 경주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건설업체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땅끝호텔의 시설 보완·인력 충원 등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재개관을 계획한다.

전남개발공사는 호텔 매각을 위해 2015년 7월부터 8차례 경쟁입찰 공고를 냈으나 유찰됐다. 수익계약 공고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수자가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수익 계약 공고를 다시 내 계약금을 납부한 건웅종합건설과 계약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적자 누적이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이 호텔을 매각했지만, 할값 매각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땅끝호텔은 전남개발공사가 2010년 민간사업자에게 35억원에 매입한 뒤 50여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으며, 이후 매년 수익원의 운영비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제품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땀뻑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보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해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해가온빌딩 1층)